



홍콩 경찰들이 1일(현지시간) 애드미럴티의 정부청사 출입문 주변을 봉쇄한 채 우산 등으로 저항하는 민주화 시위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40여 명을 체포했으며 양측의 격렬한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연합뉴스

홍콩 시위대 정부청사 봉쇄 시도...경찰과 충돌

헬멧·마스크 착용한채 출입문 차단...경찰, 후추 스프레이로 맞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 정부청사 건물 봉쇄에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를 주도하는 대학생들 연립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학련)와 중·고등학생 단체 학민사조(學民思潮)는 이날 저녁 애드미럴티에서 시위대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최근 가우룽(九龍)반도 몽콕(旺角)의 시위캠프 철거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부청사 출입문 봉쇄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위 지도부는 정부청사 점거를 포함해 강도를 높인 투쟁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위대는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정부청사의 각종 출입문 봉쇄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장관(행정수반) 판공실 부근에서는 출입문 봉쇄를 시도하는 시위대와 후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간 물리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약

3000명의 경찰관을 애드미럴티에 배치했으며, 시위대가 재점거를 시도하는 몽콕에도 약 4000명을 배치했다. 앞서 시위대 수백명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만 몽콕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다 15세 소년 등 9명이 무기 소지 및 운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위대는 몽콕 아가일(亞皆老) 스트리

트 부근에서 출발해 네이션(彌敦) 로드를 따라 짐사추이(尖沙咀) 해변까지 행진했다. 대부분 차로 대신 인도로 행진했으며 정치적 구호 대신 '쇼핑을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쇼핑' 구호는 경찰과 충돌을 피하면서 동시에 "시위캠프 철거 후 더 많은 시민이 몽콕 지역에 쇼핑하러 가야한다"고 한 당국자들의 발언을 조롱하려는

'꼼짝마!' 중국 제3차 감찰 돌입

남방항공·국제광파방송국 등 13개 기업·기관 대상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감찰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약 한 달여간 2014년 제3차 중앙순시 활동에 들어갔다. 1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앙순시조는 전날부터 총 13개의 감사대상 기업 및 기관으로 출저해 해당 기관의 비리와 문제점을 살피기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의 대상은 남방항공, 중국선박,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중국해운, 화톈(華電)집단, 동풍(東風)자동차, 선화(神華)집단,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 등 8개의 중앙 국유기업과 문화부, 환경보호부, 중국과학원, 전국공산당연합회, 중국국제광파(라디오)방송국 등 총 13개 기업 및 기관이다. /연합뉴스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시작된 지난 9월 28일 이후 64일간 경찰과 시위대간, 시위 찬반 세력간 충돌에 따른 부상자 수는 47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영국 가수 피터 다브리와 러시아 여성 펄크 록그룹 푸시 라이엇 등은 최근 홍콩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담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는 "이번 순시는 기존 조사와 달리 목표가 명확하다"면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철저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순시에서는 조사단의 우선전화번호와 매일 주소 등 외에 일부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비리 제보를 처음으로 받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순시조는 지난해 2012년 말 제18차 당 대회 이후 지금까지 총 4번의 현지조사를 통해 총 436명의 당·정 관리들을 비리로 낙마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퍼거슨시 인구 구성 반영 흑인 경관 비중 늘리겠다”

제임스 놀스 시장 밝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 당국이 흑인 경관 비중을 높여겠다고 발표했다. 제임스 놀스 퍼거슨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퍼거슨 시의 인구 구성을 더 반영해 경관을 충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백인 경관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근처에 있는 소도시 퍼거슨의 주민 중 67%가 흑인인 반면 경관 중 흑인은 7%가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놀스 시장은 흑인이 경관으로 일할 확률을 갖출 수 있도록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경관의 직무 수행 결과를 검토할 시민심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퍼거슨 사태 발생 이후 유급휴직 상태였던 월스 경관은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각료들과 만나 지난 8월 자신이 지시했던 군장비 경찰 공급 재검토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른바 '1033 프로그램'에 따라 군 보유 장비와 화기를 지역 경찰 등 치안기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퍼거슨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중무장 논란이 거세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공급 재검토 지시를 내려 사실상 군 장비 공급을 금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민단체 대표 및 치안당국 관계자와도 만나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이 상호신뢰를 쌓는 방안을 논의한다. 월스 경관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퍼거슨 시 당국과 백악관이 나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흑인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미주리 주 지역 언론들은 전날 밤에도 100여 명의 시위대가 월스 경관을 불기 소처분한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몇몇 시위대는 미국 국기를 불태우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은 시위대 중 2명을 체포했고,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는 약 10명이 체포됐다. /연합뉴스

日 민주당 “중의원 선거 100석 이상 목표”

“국회서 존재감 보이고 차기 선거 과반 발판”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다음 달 14일 투표가 시행되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75석 가운데 10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전원 당선이라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세자릿수는 될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세자릿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시즈오카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의 의석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다만 “100석이 승패의 기준은 아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자신을 책임지는 기준은 별개라는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앞서 가이에다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의 의석수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가이에다 대표가 언급한 세자릿수에 관해 민주당의 한 간부는 “100석이 있으면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고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노리는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총선 때는 전체 480석 가운데 자민당이 294석, 공명당이 31석을 차지해 325석의 거대 연립 정권이 만들어졌으며 민주당은 57석을 얻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남가발

프리모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신제품

59만원~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대산프리모가발